

안전의식 향상으로 무재해 구현



쌍용양회공업(주) 영월공장
안전관리자 임 성 하

강 원도 영월에 용두마리가 하늘로 승천하는 곳이 있다. 연간 30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는 이곳은 1964년부터 공장을 가동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품질을 인정받고, 역사가 배어 있는 쌍용양회공업(주) 영월공장이다.

영월공장은 1967년 안전관리실을 설립하여 1983년도 무재해운동을 개시한 이래 무재해목표 1배수 5회달성, 사내 무재해목표 100만시간 12회를 달성하였으며, 1984년 전국위험예지훈련 경연대회 입상, 제2회 아차사고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0년도 전국 자체검사 사례발표 대회에서 장려상 수상 등 각종 안전 관련 경연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

그 외 개인적으로 노동부장관표창과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 쌍용양회의 안전활동에 대해 인정받고 있다.

쌍용양회 영월공장은 시멘트 생산 공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그 위험

성은 크다. 원석을 채광, 운광, 조쇄하는 공정에서는 화약 취급 부주의에 의한 위험과 초대형 80톤 트럭의 교통사고 위험, 장거리 벨트 운전시 위험이 항상 잠재하고 있다. 원석 분쇄과정에서는 천장크레인에 의한 충돌, 협착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1,450도의 고열을 이용하는 소성공정에는 고열에 의한 화상 위험 등 모든 공정에서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 공정에서도 무재해목표 달성과 여러 안전관련 활동 경연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경영자의 확고한 “안전제일”의 경영방침과 안전관리자의 강력한 추진력, 전 종업원의 안전활동 생활화가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무재해 사업장으로 쌍용양회 영월공장을 만든 요인은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안전활동이 기인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분임조별 토의식 안전교육



쌍용양회공업(주) 영월공장 전경

각 안전분임조별로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점을 토의 후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안전정보·기타 사항에 대해 토의식으로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자연스런 안전교육과 전 직원을 안전교육에 동참시킴으로써 교

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위험기계 자체검사팀 운영

생산과, 전기과, 기계과, 토목·건축과에서 경험과 기능을 겸비한 현장반장,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위험기계 자체검사팀으로 구성하여 합동으로 위험기계·기구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합동으로 개선함으로써 위험기계 성능을 100% 유지하고 있다.

오늘의 위험 예고제

20년간 재해통계를 일별, 월별, 요일별로 분석하여 빈도율과 과거 재해사례를 게시함으로써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제도로 현재 재해예방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제도 중 하나이다.

생산라인별 안전보증제도


생산라인별로 안전시설물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험요인을 완전히 제거시 녹십자 안전보증 마크를 부착함으로써 구역별 안전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안전작업표준서 작성

각 부서 작업 종류별 작업순서, 안전수칙, 사용공구·기구, 사용보호구 종류, 작업의 위험요인 등을 내용으로 한 안전표준서를 작성한 후 현장에 비치하여 작업자가 위험예지활동시 표준서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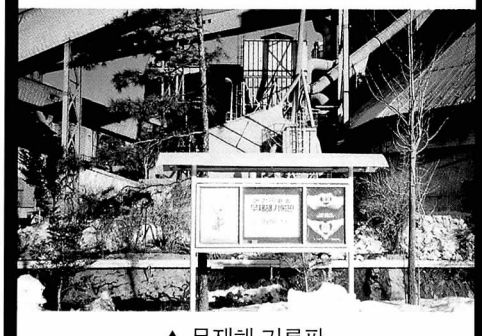
이 외에도 안전의 날 운영, 아차사고사례 제출, 분임조 단위 무사고 포상제도 및 산재보험료 절감시 포상, 안전조회 및 위험예지훈련, 근·경 합동 안전관리활동 전개 등 활기찬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임성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현장의 안전관리는 원리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요령과 여유, 생략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 중 작은 불안전 행동과 상태를 보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묵인해 버린다면, 이는 곧 재해의 원인이 되어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직장동료가 재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용 두 마리가 하늘로 승천하는 힘찬 기상을 지닌 쌍용양회 영월공장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무재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영월공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기법을 연구·개발하여 영원한 무재해 현장을 이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도 한치의 위험요소를 허용하지 않는 무재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쌍용양회 영월공장은 무재해 사업장 건설이라는 목표가 무난히 달성될 것이며, 계속 발전하는 기업이 되길 기원한다. 



▲ 금일의 위험예고게시판



▲ 무재해 기록판